

‘육성’으로 듣는 창작의 고통과 인간적 고뇌

예술가들의 편지



위대한 예술가의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편지를 읽는 것이다. 세계 예술사를 빛낸 예술가의 서간집에는, 예술을 향한 예술가의 끝없는 욕망과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

악성 베토벤의 편지를 묶은 《베토벤, 불멸의 편지》(김주영, 예담)는 운명적 슬픔을 뚫고 환희에 다다른 예술가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는 1800년 6월 친구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마의 질투인지, 건강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네. 귀가 점점 나빠져 악기와 가수의 고음이 들리지 않고... 고막이 터질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네”라며 절규한다. 장애 문제가 생겨 귀가 들리지 않자 절망에 사로잡힌 그는 1802년 급기야 유서까지 썼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창작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곡에 몰두해 명작 《합창》을 남겼다. 또 그는 “천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 살고 싶다”며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갈망을 보여줬고, 수신인을 밝히지 않은 편지에 “잠자리에서도 내 생각은 그대, 불멸의 연인에게 달려갑니다”라고 써 세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태양과 운명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신성림, 예담)와 《고흐의 편지》(정영일, 선영사)는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도 창작 욕을 불살랐던 고흐의 예술혼이 담겼다. 그는 1889년 1월 동생 테오에게 “너 하나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고 쓴 편지를 보냈다. 또한 그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편지도 보낸다. 1885년 4월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

예술가들의 편지에도 자잘한 일상생활의 고뇌가 담겨 있다. 미지의 여인에게 보내는 연서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개인적 고뇌만을 편지에 담은 것은 아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불후의 명작을 남기려는 열망이 편지의 갈피마다 가득 실려 있다.

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고 술회했다.

작가들도 삶의 고뇌를 솔직하게 고백한 편지를 곧잘 쓰곤 했다. 카프카는 의견차로 마찰을 자주 겪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정초일, 푸른숲)와 《카프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이재황, 문학과지성사)는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하지 못한 것들”을 담은 장문의 편지다.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독백한 편지는 그의 생애와 작품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어머니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간추려 묶은 《생텍쥐페리의 편지》(안응렬, 수문출판사)와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이상기, 움직이는책)는 그의 자유분방한 예술적 기질을 잘 보여준다. 여행과 모험을 즐겼기 때문에 항상 오지를 떠돌았던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진척을 알리곤 했다. 특히 그는 ‘평화의 장소’로 여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자주 썼다.

《괴테, 불멸의 편지》(이상기, 푸른숲)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로테’로 추정되는 ‘살로테 부프’에게 보낸 편지를 모았다. 그녀를 사랑함에도 소유하지 못한 고통을 절절한 육성으로 읊었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울프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 탄, 문학세계사)와 《D. H. 로렌스 서한집》(엄정옥, 원광대출판부), 그리고 영국 작가 크리스토퍼 리치의 《어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현준만, 동문사) 등도 예술가의 정신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서간집이다. 특히 《젊은 시인에게...》는 울프와 헨리 제임스가 주고받은 편지가 들어 있어, 당대를 대표하던 두 문인이 모습을 살피볼 수 있다.

서점가에서 동양 예술가들의 서간집을 찾기란 어렵다. 한 출판인은 “동양 예술가들이 남긴 편지는 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출판사들이 출간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동양 예술가들의 서간집도 출간되기를 소망해 본다. - 오원진 기자